

두 나무와 생활의 두 원칙

9/26 월요일

아침의 누림

창 2:9, 17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17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일 5:11-13, 20

11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0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그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요 5:39-40

39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40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 6:35, 57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 사람이 살기 위해 양식에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행 17:28) ...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두 종류의 양식이 있음을 보여 준다. 사람들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거나,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창세기 2 장의 두 나무를 읽어 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하는 바는 이 두 나무가 우리에게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할 때 두 원칙으로 살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사람은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 수도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의 원칙에 기준을 두고 생활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원칙에 기준을 두고 생활한다. (워치만 니 전집, 56 권, 복간 부흥보, 197-19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이 옳고 그름에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생명에 따라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가? 많은 사람의 생활 가운데에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만 있다. 어떤 사람의 생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는 두 나무가 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치를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려면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 외에 또 다른 생활의 원칙을 언급하겠다. 이 생활의 원칙은 바로 최악의 원칙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생활의 원칙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최악으로 말미암아 살거나, 옳고 그름으로 말미암아 살거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 뜻은 매우 간단하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고 세상의 풍조에 묶여 그들 마음속에 운행하는 악한 영을 따라 행한다. 그들의 생활의 원칙은 최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엡 2:1-3). ... 이 방면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최악의 원칙에서 해방되었다고 믿는다. 여기서는 이 최악의 원칙 외에 서로 다른 두 나무가 나타내는 생활의 두 원칙을 보기로 하자.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 어떤 이는 옳고 그름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고, 어떤 이는 생명의 원칙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이 문제를 다룰 때, 나는 우리가 이미 최악의 원칙을 벗어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길을 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사람들의 생활의 원칙을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의 원칙에 따라 살고 있다. 옳고 그름의 원칙이나 선과 악의 원칙은 기독교가 아님을 기억하기 바란다. 기독교는 생명의 문제이지 어떤 표준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생명을 가르치지만 옳고 그름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곳에 청년 형제자매들이 많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은 후, 여러분 속에는 매우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여러분 속에 생활의 또 다른 원칙이 생긴 것이다. 우리가 이 원칙을 알지 못한다면, 생명의 원칙을 제쳐 두고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를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56 권, 복간 부흥보, 198-20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경륜, 4-5 장

9/27 화요일

아침의 누림

창 2:9, 17

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17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엢 4:17, 22-23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22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 없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23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요 1:4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일 2:25

25 그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일 5:13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마 7:14

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다. “이 일을 한 것이 잘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옳은가 그른가? ...” 우리는 선과 악의 여부를 묻고,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옳은가 그른가를 묻는다. 많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그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고려하고,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고려한다. ... 여러분은 특별히 선한 것들, 옳은 것들,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매우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러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이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거나 선을 선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다.

선택하고 거절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 그것은 율법적이고 세상의 종교이며 사람의 도덕과 윤리이지 기독교가 아니다. (워치만 니 전집, 56 권, 복간 부흥보, 20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기독교는 곧 생명이다. ... 기독교는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기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단지 밖에 있는 선과 악의 표준만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밖의 표준이 아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십계명을 얻은 것이 아니며, ... 옳고 그름이나 선악시비를 묻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 안의 느낌이 옳다고 느끼고, 우리 안에 생명과 힘과 기름바름이 있고, 우리 스스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많은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옳고 타당하고 선한 것이지만, 기이하게도 우리 안의 그 생명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냉담해지며 위축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속생명에 근거한 것이지 외적인 옳고 그름의 표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 곧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원칙은 아무리 높다 해도 옳고 그름에 불과하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밖의 표준이나 밖의 율법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덕이나 관념을 말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평판과 견지에 의해서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곧 속생명이 어떠한가이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힘이 나고 살아 움직이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식어지고 위축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우리의 생활의 원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속생명을 따른 것이 옳은 것이다. 속생명을 따르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은 외적인 표준이 아닌 속생명에 의해 결정된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악한 모든 것을 피해야 할 뿐 아니라, 단지 선하기만 한 모든 것도 피해야 함을 볼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생명에서 나온 것만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은 악하고, 어떤 것들은 선하며, 어떤 것들은 생명에 속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과 생명에서 나온 것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악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 2:17)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선과 악을 함께 두었다. ‘선과 악’은 하나의 길로서 함께 두어지는 반면에, ‘생명’은 또 다른 길이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악을 거절해야 할 뿐 아니라 선일지라도 거절해야 한다. 선이라는 표준보다 더 높은 표준이 있다. 그것은 생명이라는 표준이다. (워치만 니 전집, 56 권, 복간 부흥보, 200-20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2권, 생명 메시지 1, 26 장

9/28 수요일

아침의 누림**롬 8:6, 11**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롬 8:14-15

14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15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시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요 3:15-16

15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일 3:14

14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거합니다.

신 30:19

19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여러분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 세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아 둡니다.

그러니 생명을 선택해 그대와 그대의 씨가 살도록 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악한 것들을 처리할 뿐 아니라 옳고 선한 것들도 처리한다. 많은 것들이 인간적인 표준에 따르면 옳지만, 신성한 표준은 그것들에 신성한 생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르다고 판단한다. ...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고 여러분도 옳다고 말하고 다 옳을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르는지, 시드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기름바름을 느끼는가, 아니면 위축됨을 느끼는가? ... 생명은 밖의 옳고 그름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강해지는가 죽어 가는가, 솟아오르는가 시드는가로 일들을 결정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어떤 일이 매우 좋고 옳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 안에서 어떠한 느낌을 주시는가? 그 일에 대해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 즐거움이 있는가, 없는가? 영적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노정을 결정한다. (워치만 니 전집, 56 권, 복간 부흥보, 204-20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떤 그리스도인도 생명을 떠나서는 어느 것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든 속생명을 증가시키는 것은 옳은 것이고, 무엇이든 속생명을 감소시키는 것은 그른 것이다. 누구도 밖의 표준으로 어떤 일을 옳다거나 그르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만 조용히 한발 물러서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옳고

그림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두 원칙의 차이는 매우 크다. 형제자매들이여, 둘 사이의 대조는 극명하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만 어떻게 하면 옳고 어떻게 하면 그른가뿐이다. ... 오늘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올라가는가 아니면 내려가는가이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결정해야 한다! 모든 것이 여기에서 결정된다.

사람은 옳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생명만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 하나님은 옳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일들을 행해야 한다. ... 마태복음 5 장부터 7 장까지에서 말씀하신 산상 수훈은 ...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남이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편도 돌려 대야 하느냐고 묻는다. 남에게 뺨을 맞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고, 욕을 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 하나님은 사람이 뺨을 맞고 나서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는 것도 속생명을 만족 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다른 쪽 뺨까지 때리도록 돌려 대는 것은 자기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화내지 않으며, 또 다시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할 때에야 충분하다. 생명은 겸손하다. 생명은 능히 다른 쪽 뺨을 돌려 다시 맞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은 선과 악의 길이 아니라 속생명의 길이다. 그 생명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다 가치가 있지만, 그 생명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면 그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마음속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자신이 범한 죄들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주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의 원칙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생명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죽음에 속한 것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 생명이 솟아오르지 않고 우리 안에 기름바름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행함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 (워치만 니 전집, 56 권, 복간 부흥보, 206-207, 210, 212-21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56 권, 복간 부흥보, 두 종류의 생활 원칙

9/29 목요일

아침의 누림

히 4:12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롬 8:16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고후 3:16-18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린도후서 3 장 17 절은 주님께서 그 영 이시라고 말하고, 로마서 8 장 16 절은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하신다는 것을 계시하며, 고린도전서 6 장 17 절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절들은 그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사시고 거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러한 절들은 또한 우리가 실질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알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분을 체험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의 영을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가 우리 사람의 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워트니스 리 전집, 1963 년, 2 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 10 장, 17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에게는 많은 속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영, 혼, 마음,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포함한다. ...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고 말한다(딤후 4:22).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분별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 마음, 생각, 감정, 의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분명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존재의 다른 속부분들과도 다르다는 것에 대해 반드시 분명해야 한다.

마음의 일부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또한 타고난 생명 혹은 자아를 가리키는 우리의 혼을 구성하는 세 부분이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영의 부분들이 아니다. ...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러한 부분들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종종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꺼뜨린다. 또 어떤 때 우리는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맞서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우리가 우리의 영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 자신을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분별하기를 배우고, 우리의 영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러한 차이점을 알지 못한다면 종종 주님과 교통신이 좌절될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영 안에서 그분과 진정한 교통신을 갖는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그러한 교통신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상기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과 우리의 교통신은 즉시 멈추게 된다. ...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아를 버리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저는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영에 동의합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거절하고 저의 영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원칙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많은 의견들을 가진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내적 감각과 깊은 의식을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러한 깊은 내적 감각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의 느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따르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느낌을 따를 때 하나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엡 3:16-17). ...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채우시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2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 10장, 176, 179-180, 183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5년, 3권, 사람의 영, 9장; 긴급한 필요—영과 생명, 2장

9/30 금요일

아침의 누림**롬 8:6**

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엡 4:18-19

18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 그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합니다.

사 40:31

31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가겠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요일 2:27

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유 20-21

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십시오.

골 3:15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빌 4:6-7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7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죽음의 느낌이다. 이것은 로마서 8 장 6 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로마서 8 장 6 절이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이 전적으로 느낌에 대한 절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느낌의 문제, 곧 의식의 문제이다. 우리의 생각을 육체에 둘 때 우리는 죽음의 감각을 갖게 된다. 우리는 죽음이 그곳에 있음을 느낀다.

죽음의 느낌은 ... 내적인 감각으로서, 우리가 약하고 공허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침체되고 메마르고 어둡고 속에서 괴롭다고 느낄 때, 이것은 죽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죽음이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육체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것이 생명의 감각의 부정적인 방면에서의 기능이다.

긍정적인 방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항목들, 곧 힘, 만족, 평안, 안식, 해방감, 생기 있음, 적셔짐, 밝음, 위로 등의 의식을 주기 위해 작용한다(롬 8:6 하). 우리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진다. 공허함 대신 만족이 있다. 불편함과 불안함 대신 평안과

안식을 갖는다. 침체 대신 해방감을 가지며 생기 있게 된다. ... 우리는 메마름이 아닌 적셔짐의 느낌을, 어둡이 아닌 밝음의 느낌을, 괴로움이 아닌 편안함의 느낌을 갖는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생명의 감각의 기능으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느낌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생명의 감각의 작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1 권,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11 장, 806-80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어떤 종류의 생명든지 그 자체의 느낌을 갖고 있다. ... 돌은 어떤 느낌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느낌을 갖고 있다. 더 높은 생명일수록 느낌이 더 강하다. 신성한 생명은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은 생명이다. 따라서 그것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예리한 느낌을 갖는다(엡 4:18). 신성한 생명이 생명의 감각의 근원의 첫 번째 항목이다. ...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예리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 감각은 죽음에 속하며 완전히 부정적인 편에 있게 될 것이다. ... 만일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 감각은 생명에 속하며 완전히 긍정적인 편에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든 긍정적인 항목들을 포함하는 생명과 평안의 느낌을 갖게 된다. 생명의 감각은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의 감각은 우리를 안내하고 다스리며 통제하고 지시한다. 이 진리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르침은 대부분 도덕성과 선한 행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들은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도록 작용하는 이 내적인 생명의 감각을 주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생명의 감각을 주의해야 한다. 힘, 만족, 평안, 안식, 해방감, 생기 있음, 적셔짐, 밝음, 위로 등의 긍정적인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지 않고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살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 공과가 단지 문자에 따른 교리적인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체험에서 나온, 생명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 생명의 감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단지 가르침 안에서가 아니라 교통 안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우리의 메시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체험했고, 어떻게 생명의 감각이 우리에게 그렇게 참되고 실지적이며,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감각의 통제하고 안내하고 지시하는 요소 아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일종의 교통이 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1 권,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11 장, 808, 811-81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9 년, 1 권, 생명에 대한 기본 공과, 11 장; 생명에 대한 인식의 재조망, 9-10 장

10/1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11:2-3

2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3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요 14:15-17

15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킬 것입니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7 그분은 실재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엡 4:29-30, 32

29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었습니다.

32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생명나무는 단순하다. 이 나무에는 오직 한 요소, 즉 생명의 요소만 있을 뿐이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가져온다. 반면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복잡하며 또한 복잡하게 한다. 이 나무는 선과 악과 지식과 죽음을 가지고 있다.

성경 전체는 이 두 나무의 발전이다.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 사탄은 죽음의 능력이다. 죽음인 사탄을 의미하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지식과 선과 악을 포함한다. 뱀은 복잡한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사용하여 하와를 미혹시켜서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게 했다. 하와는 미혹되었고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그 결과 하와는 타락했고, 그 타락을 통해 죽음이 들어왔다. 이것이 뱀이 어떻게 하와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멀어지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53 장, 490-49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11 장에서 바울은 유대교도들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뱀이 하와에게 했던 일을 적용한다. 나는 바울이 그의 깊은 영 안에서 이 두 문제가 실제로는 하나이며,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 에덴동산에서 발생했던 일의 재현임을 깨달았으리라 믿는다. 하와는 아내였으며,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약혼한 순수한 한 처녀였다. 이러한 이유로 2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에덴동산에 있던 아내는 간교한 뱀에 미혹되었다. 고린도에 있는 처녀는 유대교도들을 통해 사탄에게 미혹되고 있었다. ... 바울은 유대교도들을 사탄과 관련시킨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어서 자기 를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이들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13-14 절) ... 바울은 거짓 사도들인 유대교도들이 사탄의 일꾼이라는 것을 지적한다(15 절).

뱀은 하와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창 3:1)라고 물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뱀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 하셨어요?” 라고 묻는 것을 본다. 이 같은 부류의 질문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손상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뱀은 하와 안으로 독을 주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손상하였다.

바울이 전파한 예수님과 유대교도들이 전파한 예수님의 차이점을 분별하는 것은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이름은 똑같았으나 거기에는 여전히 분별이 필요했다.

어떤 것을 분별하는 최상의 길, 곧 분별의 비결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에 따라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주님을 더 누리도록 도와주고 나를 생명 안으로 인도하는가, 아니면 죽음의 독을 내 안으로 주입하는가?’ 만일 여러분이

어떤 가르침이나 전파를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인다면, 즉시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내적인 누림이 끊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것들의 기능은 절연체와 같아서 거룩한 전기의 흐름을 차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생명과 죽음에 의해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의 전파나 가르침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빼앗아 간다면, 그 가르침은 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사역은 항상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해 준다.

여러분을 주님께 대한 누림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누림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 영계 속한 것이며 신약의 사역에 속한 것이다.(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56 장, 491-492, 495-49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53 장

2022. 9. 26 ~ 2022. 10. 1

단체로 읽을 말씀: "생명 나무", 16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2권,
-- 생명 메시지 1, 26장
워치만 니 전집, 56권,
-- 복간 부흥보, 198-213쪽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53장

10/2 주일

아침의 누림

마 17:1-8

1 육 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3 보아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4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5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보아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6 제자들이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매우 두려워하였다.
7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시자,
8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찬송: 738 (英) 모든 생명 의식 있고 (中:534)

- 1 모든- 생명- 의식- 있고 느낌- 갖고- 있네 우리의 거룩한- 생명- 느낌- 더욱- 높아.
- 2 생명-의 질- 높을-수록 느낌-이 더- 강해 하나님 생명 높-으니- 느낌- 제일- 높네.
- 3 하나-님 생-명 느-낌은 하나-님의- 느낌 선량한 느낌 초-월해- 우리- 안에- 있네.
- 4 내적-인 생-명의- 느낌 가장- 높은- 느낌 모든 것 분별하-여서- 주의- 뜻 밝-히네.
- 5 안에- 생명- 느낌-으로 하나-님 알-겠네 바깥의 노력 아-니요- 자연-스런- 계시.
- 6 생명- 안에- 자랄-수록 느낌-이 예-민해 생명으로 행동-할 때- 느낌- 강해-지네.
- 7 생명-의 느-낌 훈-련해 우리- 영 강-해져 하나님 느낌 통-하여- 교통- 더 증-가해.